

지 난 7월26일 전국계우회연합회에서 최준구씨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최회장은 현재 본회 이사, 광주채란분회장을 맡아 협회조직 강화에도 맹활약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난가조절위원으로서 채란계산업 발전에도 큰 몫을 차지해 오고 있는 중이다.

본회 및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전국계우회연합회의 중책을 맡은 최회장을 통해 단결이 가장 시급한 양계업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키 나갈 것인지 의향을 들어본다.

□ 회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양계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 소감이 어대신지요?

서로가 사는 길은 단합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채란계의 경우만 하더라도 오랜 기간동안 지난가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야 할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건상 나만 잘한다고 살 수 있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양계인들이 단합하는 것이 나도 살 수 있거니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져 어떤 모임이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다니니 중책만 맡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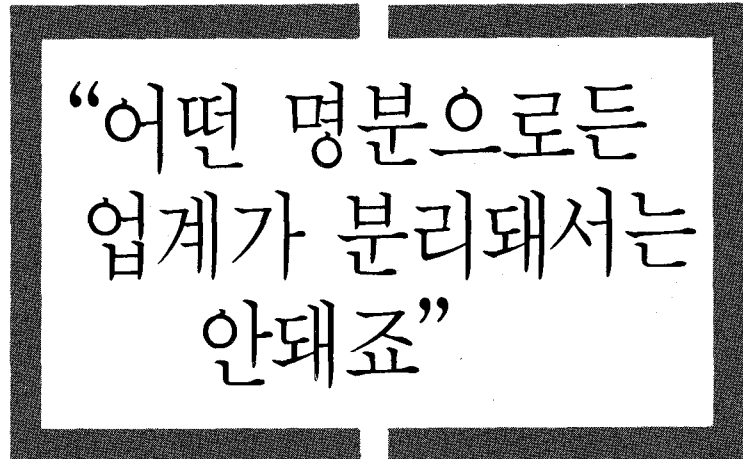
그러나 이 길이 우리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면 있는 힘을 다해 기꺼이 뛰겠습니다.

□ 그간 계우회연합회가 생각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 인

상인듯 싶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계우회 연합회가 처음 발족될 때 어떤 특정단체를 이탈하려는 모임이 아니었느냐는 말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전국의 계우회 조직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연합회가 조직된 것인데 처음 생각과는 달리 대군업자들의 참

군업자들이 절대 호응을 하여 이에 자신감을 얻어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직이라는게 회장 혼자서 적극적으로 일한다고 되는게 아니질 않습니까. 회원들이 호응을 해주어야 회장은 의견에 따라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호응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소신껏 일해볼 생각입니다.



여가 제대로 되지않아 활성화가 안됐다고 봅니다.

□ 처음에는 회장직을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수락을 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요?

대군·소군으로 나뉜 것이 활성화 저해

능력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계우회가 대군업자와 소군업자들로 나뉘어 움직여 왔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없었는데 대

□ 계우회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생각이며 다른 양계업계내의 조직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서 계우회의 가장 큰 활약은 난가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난가를 조절하는 데는 일부 계우회만 참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 있는 계우회 조직이 모두가 연합회에 참여를 해서 명실상부한 전국단위의 모임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군, 소군 가릴 것 없이 채란업자들은 다 참여를 해서 우리가



▲ 최준우 회장

“**업계가 활성화돼도 단체는 많아지고
업계가 어려워져도 단체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단결이 되면 호황이 오는데
분열이 조장되면 불황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산한 물건 우리가 생산된 양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야지 전적으로 상인에게 시장경제를 좌우하게끔 한다면 늘 불리한 입장에서 당하게만 됩니다.

조만간에 전국계우회연합회 사무실을 을지로 6가에 개설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합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할 계획입니다.

화합하고 단합하는 방향으로 이끌 계획

현재 말고 있는 광주채란분회장을 너무 오랫동안 해와서 다른 분께 맡겼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난립되어 있는 계우회를 내실있게 규합을 하면서 협동조합은 조합대로, 협회하고는 협회대로 더욱 유대강화를 맺어 서로가 화합하고 단합하는 길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협회나 협동조합 그리고 계우회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여 무슨놈의 단체가 그

렇게 많으냐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모두가 다 있어야 할 모임체들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 단합하려는 마음입니다.

한가지 예로써 수입개방문제가 대두될 때 계우회조직만으로 양계업계를 대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럴 때에는 협회조직을 서로가 심분 이해하여 전 업종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계우회나 협회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또 조합의 장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저년까지 계란 수매비축이 바로 그런 사업 아닙니까.

너무 단점만을 들추어 내려니까 단합이 안되고 자꾸만 이질적인 단체처럼 대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상호협조 정신을 발휘하여 양계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나갔으면 하고 저도 또한 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체는 나혼자 농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났고 점점 불리해지는 업계 입장을 양계인들이 모여 공동대처를 해 나가야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소득원을 높여야 노력해지지 비싼 노동력만 제공하여 원가 이하에 계란을 팔아 봐야 결국 남는게 없습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고 일치된 마음가짐으로 살 권리를 찾는 데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단결을 해야 살 수 있다는 어찌보면 그나마 같습니다. 아무쪼록 분산되어 있는 업계를 하나로 뭉치는데 가교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이제는 생산자들도 회장님의 말씀을 내 일처럼 느끼고 받아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계**